

## ■ 2008 스포츠 10대 뉴스

-연합뉴스 선정

## 박태환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



베이징올림픽 개막 사흘째인 8월10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국가아쿠아틱센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 나선 '마린 보이' 박태환(19·단국대)은

150m 지점부터 훌쩍 앞서나가 경쟁자들의 추격을 절대 허용하지 않은 채 3분 41초86을 기록하며 가장 먼저 터치페드를 두드린 뒤 불끈 푸른 주름으로 하늘을 짚었다. 한국 수영 뿐만 아니라 한국 체육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 한국 올림픽 금 13개 '사상 최다'

한국이 지난 8월 중국의 심장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출전 사상 가장 많은 13개의 금메달을 따내고 은메달 10개와 동메달 8개를 보태 금메달 9개에 그친 일본을 제치고 종합 7위에 올랐다.

금메달 13개는 1988년 서울 대회와

## 김연아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우승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 5개 대회 연속 우승과 2008-2009 ISU 그랑프리 파이널 은메달까지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의 눈부신 활약이 빛난 한해였다.

김연아는 지난 12월 치러진 2008~

2009 SBS ISU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아사다 마오(일본)에게 1위를 내 줘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 달성을 눈앞에서 놓쳤다.

## 신지애 비회원 LPGA 3승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의 12개보다 1개 많은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 전체 메달 수는 31개로 서울 대회(3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순위도 서울 대회(4위) 다음으로 좋았다.

신지애는 올 시즌 LPGA 투어 정규대회에 10차례 출전, 세 차례 우승을 포함해 모두 여섯 차례나 텁10에 들어 벌어들인 상금만 해도 약 177만달러.

LPGA 투어 정식 멤버가 아닌 선수가 3승을 올린 사례는 이전에는 없었다.

## 프로야구 SK, 한국시리즈 2연패



2008년 국내 프로야구의 또 하나 회사는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2연패와 이를 가능하게 한 '야신'(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이었다.

4월20일 잠실에서 두산베어스를

11-2로 이기고 선두로 올라선 SK는 이후 한 번도 2위로 내려서지 않았고 최종 83승43패(승률 0.659)로 2년 연속 정규리그 1위에 올랐다.

팀 방어율(3.22)은 8개 구단 중 압도적 1위, 팀 타율(0.282)은 롯데 자이언츠와 공동 1위였다.

## 수원 삼성, K-리그 더블 달성



'명문구단' 수원 삼성이 K-리그 더블(2관왕)을 달성하며 프로축구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수원은 지난 3월과 7월 잇달아 열린 2008 삼성하우젠 K-리그 FC서울과 홈앤

드어웨이 협의연결전에 서 첫 판을 1-1로 비긴 뒤 2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머쥐며 대망의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김호 감독이 이끌던 1998년과 1999년 2연패에 이어 차범근 감독 부임 첫해인 2004년에 정상에 올랐던 수원은 이로써 4개의 별을 유니폼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됐다.

## 프로복서 최요삼 경기 후 사망

한국 스포츠는 2008년 한 프로 복서의 죽음과 함께 시작했다.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최요삼은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자양동 광진구민 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도전자 해리 아볼(25·인도네시아)을 압도한 끝에 판정

승을 거뒀지만 종료 직전에 허용한 오른손 스트레이트 충격으로 경기 후 쓰러졌다.

뇌출혈을 일으킨 최요삼은 뇌사 판정을 거쳐 2008년 1월3일 오전 0시1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향년 35세의 짧은 삶을 마감했다.

## 야구 올림픽 금...500만 관중 재현



2008년 한국 야구가 2012년 런던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돼 마지막 무대로 어려웠던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은 세계를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2연패한 여자 핸드

볼에 이어 한국 구기 단체전으로는 세 번째로 금메달 사냥의 금자탑을 쌓았다.

올림픽에서 대성공으로 프로야구는 500만명 관중을 돌파하며 패권행진을 거듭했다.

## 태권도 문대성, IOC선수위원 당선



2004 아테네올림픽의 '태권도 영웅' 문대성(32) 동아대 교수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 경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돼 한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써어졌다.

문대성은 투표 결과, 총 7천216표 중 3

천220표를 얻어 후보자 29명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

도전했지만 모두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

림픽 때 쇼트트랙 출신의 전이경,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강광배가